



## Focus sector: F&B 섹터 글로벌 소송 동향

- 그린워싱을 비롯, 과장, 허위 광고와 라벨링으로 인한 집단 소송 증가 -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경영 전략의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이점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그린 워싱”은 특히 식품 업계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워싱을 포함한 식품 업계의 과장광고로 인한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F&B 섹터에서 발생한 집단소송 등 분쟁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 1. 배경

#### ▪ F&B 섹터에서의 허위, 과장광고 문제

건강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관련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린워싱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F&B 업계의 ESG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친환경단체인 체인징마켓스재단(Changing Markets Found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업계는 식품 라벨과 광고를 통한 친환경 제품 주장 중 다수가 과장됐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등 그린워싱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sup>1</sup>

네슬레는 사회적·환경적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였지만 네슬레는 아동과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 핫코코아를 제조하였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재활용과 지속가능성을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을 광고만큼 실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벨기에의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의 미국 자회사는 한국 내에도 출시한 ‘버드 라이트 넥스트(Bud Light Next)’ 맥주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받은 ‘기후 중립 인증(Climate Neutral Certified)’을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것처럼 광고하였고, 스웨덴 스타트업 볼타 그린테크(Volta Greentech)는 신규 브랜드인 롬(Lome)을 런칭하면서 소에게 해초를 먹여 메탄 배출량을 80% 감소시켰다고 광고하였지만 이후 이는 불과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시범 프로젝트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457개의 환경 인증이 존재하며, 유럽에서만 100개 이상의 환경라벨이 식품 등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검증기관마다 이용하는 방법론이 달라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워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up>1</sup> [그린워싱 가장 심각한 분야는 식품업계? < 글로벌 < 지속가능경제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https://www.esgeconomy.com)

## 2. F&B 섹터 소송 동향 및 대표사례 소개

미국 로펌인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에 따르면, 식음료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2010년 45건에서 2020년 220건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카길, 타이슨, 사르젠토, 트레이더 조스, 스타벅스, 켈로그, 네슬레,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소송의 유형으로는 식품 라벨 표기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재료의 원산지 관련 소송,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이 암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소송,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생산 또는 공급된다는 표현에 초점을 맞춘 소송 등이 있습니다.<sup>2</sup>

### (1) 라벨 표기사항 관련 소송

코카콜라는 환타 피나콜라다 음료가 인공 향료를 이용하였음에도 100% 천연적으로 맛을 낸 것으로 광고하여 제소당했고, 트레이더조의 딸기 패스트리는 실제로는 사과가 성분의 대부분이었음에도 딸기가 주 성분인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제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맛(flavor)"과 관련하여 1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다수의 소송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단순히 라벨의 기재만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다이아몬드의 경우, 바닐라맛 아몬드 밀크와 요거트 제품들이 천연 바닐라로 향을 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소송에서 26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 (2) 원산지 관련 소송

몰튼 솔트는 실제로 히말라야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파키스탄의 소금광산에서 생산된 소금을 "히말라야 솔트"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제소당하였습니다.

원산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부적격 원산지 표시의 근거와 제품에 여러 성분이 포함된 경우 적격 원산지 표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FTC 지침을 준수하려면 제품이 '미국산' 또는 '미국산'이라는 표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외국산 내용물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 (3)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소송

켈로그, 포스트의 시리얼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리얼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광고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켈로그는 1300만달러에 합의하였으며, 포스트 푸드는 1500만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제품 칼로리의 10% 이상이 설탕 첨가에서 비롯된 경우 특정 제품을 "건강" 또는 "건강에 좋은" 또는 "영양가 있는"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코카콜라가 소유한 우유 제조업체 Fairlife LLC에서는 목장의 소를 확대하는 영상이 퍼졌고, 소를 확대하고 아닌 척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에 대하여 2100만달러에 합의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2021년에도 미국 시설에 재활용 용량이 없는데도 병을 '100% 재활용 가능'이라고 허위 마케팅한 혐의로 다른 음료 회사들과 함께 제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속적으로 포장재에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했다고 광고해 왔는데, 2022년 포장재에 PFAS라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소당했습니다.

<sup>2</sup> [Food & Beverage Industry's 2022 Litigation Outlook | Food Manufacturing](#)

네슬레는 사회적, 환경친화적이라는 내용을 포장지에 표기하였지만 네슬레의 코코아 재료의 원산지인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아동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서 제소당하였습니다. 네슬레는 소송 기각을 신청하였으나 네슬레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3. 관련 솔루션 및 국내기업의 유의점

미국의 스타트업 하우굿은 식품 원재료의 지속가능성을 공정하게 추적하고 증명하며 제품의 친환경을 입증함으로써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우굿은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영향, 프로세싱 영향, 물 사용량, 노동위험, 토지 사용, 토양 건강도, 동물 복지 등 자사가 설계한 8가지 지표로 3300개 이상의 식품 원재료를 추적 및 평가하여 회원 기업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up>3</sup>

국내 기업은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인증을 제품에 표기하고 광고에 활용할 때에 인증의 객관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네슬레 사례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산지와 공급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린워싱 등 식품업계의 과장 및 허위광고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집행이 강화되고 관련 규제가 신설될 수 있으니 기업들은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sup>3</sup> ['하우굿'은 어떻게 식품의 지속가능성을 추적하고 증명할까? < Feature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선임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mailto:synn@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장슬기** T. (+82) 2 6182 8365  
변호사 E. [skjang@yoonyang.com](mailto:skjang@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컨설턴트 E. [hyang@yoonyang.com](mailto: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mailto:khji@yoonyang.com)